



환상적인 한국무용 제60회 호남예술제 무용 경연이 23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가운데 한국창작무용독무 부문에 참가한 김연우(광주상무초5)가 청연이란 주제로 경연을 펼치고 있다. 김 양의 춤사위를 30장의 다중촬영기법으로 촬영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군 1전비가 2300개 일자리 창출 한다고?

연간 1400억 지역경제 효과 등 軍측 ‘뜬금없는 발표’ 지역민들 “전투기 소음 등 여론 무마용 아니냐” 반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최근 부대 주둔으로 인해 137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음 피해 등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조속한 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전투비행단은 지방재정 교부금 등 재정적인 기여 외에 부대원들과 민회객들의 소비지출, 부대 사업비 지출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말 그럴까. 공군 1전투비행단의 경우 지방세 등 지방재정기여 7억원, 현역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원 소비지출(551억원), 부대사업비 지출(318억원), 장병 면회·외출·휴가 효과(13억원) 등으로 지역경제에 각각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230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7억원에 이르는 지역주민 복지 기여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공군 부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변 집값 하락이나 생활 불편 등은 고려하지 않고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냉담한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광주에서 진행중인 한·미연합 영공방위 훈련에 따른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공군 부대 인근 주민들은 ‘한·미연합 영공방위훈련’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오전 9시~밤 10시까지 하루 100대 이상 이·적륙하는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대책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이같은 시민 고통을 예상할만하다.

광산구와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민 9600명은 지난해 1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서 승소, 207억원의 배

상 판결을 받았다.

또 주민 5만4000여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런 소송 금액을 모두 합하면 공군이 내놓은 1400억대를 훌쩍 넘어선다. 공군의 지역 기여도가 주민들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놀음식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민 김모(여·46·광산구 신촌동)씨는 “피해 보상의 범위가 주민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한정됐다.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공군이 왜 주민들을 자극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나서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학교 교직원들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급증

세월호 참사 후 안전의식 높아져 광주·전남 소방본부 문의 ‘붐’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 소방본부는 밀려드는 문의 및 교육 신청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포기했을 정도다.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한 학교보건법령 개정도 한몫을 했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2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319개 학교 교직원들이 한꺼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하면서 뻘뻘한 교육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학교별 출장 교육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초·중·고등학교 보건·체육교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스포츠강사는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외 교직원도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10만 9015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 전년도(5만5132명)에 견줘 2배 이상 늘어났고 성인 참가자(4만5036명)가 전년도(9805명)에 비해 급증했다.

전남도소방본부도 비슷해 지난해만 728차례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교직원 등 2만367명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주먹구구식 ‘광주 희망교실’ 전면 재검토해야”

시의회 조오섭 의원 지적

광주시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희망교실’이 주먹구구식 선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4월22일 7면 보도>과 함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북구2)은 23일 광주시의회 교육행정제에 관한 시정질문에서 “희망교실 사업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학급 피자파티를 하는 등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학년·학급·동아리형 등 세단위로 분류돼 있는데 S중학교의 경우 학교와 학급에서 이중 지원된 의혹이 있

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교육청 예산 심의 당시 희망교실 예산 산출 근거를 학급형 2500교실, 학년형 300교실, 동아리형 200교실 등 총 3000교실을 운영하고 교실당 100만원씩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 배정된 금액은 교실당 50만원에 불과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방해하는 행정”이라며 “특히, 희망교실에 선정된 교사들은 1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50만원으로 수정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신청자가 많다고 대부분 받아주는 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희망교실 사업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조사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0 해질 19:12 달출몰 10:21 달몰 23:43

나들이 어디로 '즐거운 고민'

중국 산둥반도 인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0/24	보성	맑음	6/21
목포	맑음	10/20	순천	맑음	11/23
여수	맑음	12/21	영광	맑음	8/21
나주	맑음	7/23	진도	맑음	7/22
완도	맑음	10/22	전주	맑음	8/23
구례	맑음	6/24	군산	맑음	8/21
강진	맑음	6/22	남원	맑음	6/23
해남	맑음	6/22	혹산도	맑음	11/17
장성	맑음	6/22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북서~북	0.5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	서~북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0.5~1.0	서~북서	0.5~1.0

◇생활지수

수면	90
운동	70
빨래	90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25(토)	☀	8/26
26(일)	☀	10/25
27(월)	☀	11/23
28(화)	☀	12/21
29(수)	☀	12/24
30(목)	☀	12/24
5/1(금)	☀	11/29

광주·전남 올 여름 무덥고 비 자주온다

광주와 전남의 올 여름은 무덥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의 5~7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기온변화의 폭도 크겠으며, 흐리고 비가 오는 날도 많을 것”이라고 23일 예보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5월의 기온은 평년 17.4도와 비슷하거나 높고 기온 변화도 크겠다.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때도 있겠다.

6월은 이동성 고기압과 일시적인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남쪽에서 저기압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겠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드는 7월은 평년 기온 24.7도 수준의 무더운 ‘여름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참사 63주년

맑고 깨끗한 자연속에서의 힐링!

맛과 멋 문화의 고장 화순으로 오세요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www.hwasun.go.kr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현길 23 T.061)374-0001